

• 산학협동 촉진을 위한 정책 건의 •

과총 산학협동위원회(위원장 최덕인)는 1999년 10월 21~22일 양일간 개최한 '새로운 밀레니엄을 대비한 과학기술 혁신과 산학협동 전략' 워크숍에서 도출채택된 '산학협동 촉진을 위한 정책건의'를 지난해 12월초 정부부처, 국회 및 관계요료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범국가적인 차원의 "IK 21(Industry Korea 21)"사업 추진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BK 21」사업과는 별도로 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대학, 공공연구소 가운데 우수 연구집단을 선정,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가칭 "IK 21(Industry Korea 21)"사업 추진

II. 산학협동사업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전문기구 설립

1. 국책연구비의 인건비 지급한도를 연구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 산업계와 학계를 연계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할 산학협동촉진 전문기구로 「경영기술자문회사」설립

3. 기업의 기술인력이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여 기업의 현장기술을 대학 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산업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입학 정원 인정

4.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라이선싱 기구」의 설치 운영

III. 산학협동연구 촉진을 위한 이공계대학 교수 활용방안 강구

1. 이공계대학 교수의 산업기술현장 근무 의무화

2. 이공계대학 교수 신규 채용시 산업기술현장 근무경력 반영 의무화

3. 교수 재임용 및 승진과 관련된 업적 평가시 논문발표 실적 외에 특허, 저작권과 아울러 산학협동연구

참여실적 반영 확대

4. 기타 산학협동연구에 참여하는 대학 교수에게 인센티브제도 시행

IV.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강화

1. 벤처기업의 주식액면가 자율화

2. 벤처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전담 기구 설치

3. 대학 창업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

4.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른 단계적인 지원

5.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확충

-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겸비한 창업보육센터 전문매니저 발굴 또는 양성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개입 유도

- 창업보육센터의 독립 운영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창업보육사업을 창업 뿐만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산학협력 기지화

'과학기술자문봉사단' 활동방향 모색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자문봉사단(단장 김상주)의 활동방향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지난 12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의 격려와 단원 및 관계자 80여명이 함께한 이 세미나에서 광주과학기술원 하두봉 석좌교수는 '과학기술봉사단의 역할'

이란 주제발표에서 봉사단 사업의 홍보 강화와 능동적인 봉사단원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정부의 인력활용 의지 및 예산 지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기술연구회 박규태이사장의 '21세기

의 산업기술'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21세기 환경문제 - 과제와 전망’ 워크숍 개최



원장이 좌장을 맡아 기초강연과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초강연〉 21세기 환경문제의 새로운 조명(노재식 : 부산대학교 초빙교수), 〈주제발표〉 대기환경과 그 과제(이종범 :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물환경과 그 과제(유명진 : 대한환경공학회장), 토양환경과 그 과제(안규홍 : KIST 환경·공정연구부장), 폐기물과 그 과제(정일록 :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연구부장), 자연생태계 문제와 그 과제(김은식 :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환경문제와 건강(신동천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장), 환경보전의 현황과 그 과제(강인구 : 안산공과대학 환경공업과 교수)

과총 환경과학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혁)에서는 지난 12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999 환경과학

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 ‘21세기 환경문제 -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 워크숍은 아태환경·경영연구원 한상욱

국제수학연맹(IMU)회장 과총 방문



위). 팔리스회장은 앞서 대한수학회 임원진과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고 가진 예방에서 이걸삼사무총장과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수학회 김성기회장과 장진수 전(前)회장, 총무이사가 같이 했다.

과학기술인신년인사회 1월 7일

과총은 새해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를 오는 1월 7일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①7

지난 12월 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국제수학연맹회장인

제이콥 팔리스(Jacob palis)교수가 9일 과총을 방문했다(사진 왼쪽줄 맨